

뉴 비 전 교 회 계 간 지

# New Vision

통권 244호 FALL 2020







## 더욱 가까이, 더욱 멀리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세계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팬데믹을 지나가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마음과 신앙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 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거나,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든 것이 **Spiritual Closeness** (주님 안에서 갖는 영적 친밀함)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더욱 느낍니다. 영상으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 감사와 함께 언제나 다시 대면하며 자유롭게 사랑과 은혜를 나눌까 하는 바람이 깊어집니다. 예배, 교회, 기도와 말씀, 성도, 신앙의 모습들이 새삼 소중함을 느끼며,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전도 있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있다면, 주님과 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증거이지요. 반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시청하는 예배로 변질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세와 옷차림도 내가 편안하도록 합니다. 수많은 Zoom meeting에 시달리고 있기에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자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하나의 Zoom meeting에 지쳐가고 있는 몸과 마음 때문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던 신

앙의 모습들은 많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의 분주함과 세상의 염려가 마음 구석 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 현장예배가 실현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해도 교회 생활로 돌아가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고 있다면, 주님께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려 주님을 향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삽니다. 그렇게 주님께 더욱 가까이,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시험과 염려에서는 더욱 멀리 거리를 두는 우리 신앙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현장 예배와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난 결과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정결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모습을 서로에게서 보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그리고 세상 유혹과 시험에 끌려가는 모습에서는 더욱 멀리 떨어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주의 교회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이진숙** 올림





# New Vision

Fall 2020  
 통권 244호

하나님의사람들을세워세상을변화시키는교회  
 Building God's People to Transform the World

발행인 | 이진수

지도목사 | 김성호

출판임원 | 조태범

편집장 | 배난모

편집팀 | 이영숙, 최영수, 박영미, 이지연

이민기, 윤미영, 최희주, 정재오,

김원철

디자인팀 | 류양희, 박성민, 이수잔, 박현주

일러스트 | 최두나

발행한 곳 | 뉴비전교회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www.newvisionchurch.org

New Vision은 뉴비전교회 잡지로 일년에 4번 계  
 절별로 출판되며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목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글과 그림, 사진으로 만들어집니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느끼  
 시고 경험한 내용을 시/수필/간증문 등으로 자유  
 롭게 쓰셔서 예배사역원 메일함 또는 배난모 집사  
 (nvcpublication@gmail.com)에 이메일로 제출하  
 시기바랍니다. 이 중 선별하여 뉴비전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내에서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분이나, 좋은 모임, 또는 알고싶은 사역에  
 대한 취재를 요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본서의 글,  
 사진, 그림은 뉴비전교회의 소유이며 사전 허락없  
 이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 Vision Church 2020

## ON THE COVER

[ 사진 | 송경원 ]



# Contents

2	담임목사 권두언	더욱 가까이, 더욱 멀리	이진수 담임목사
3	목차		
4	사역팀 소식	목장 재편성 TF 팀	홍형기
5	교회 행사	VBS 2020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7	여름특강	<산상수훈>을 수강하고	박재민
8		<끝내는 구약1독>을 수강하고	박세영
10		<끝내는 구약1독>을 수강하고	김세라
11		한마디 소감문	
12	간증	2020 PERSPECTIVES 온라인 선교 훈련	박기홍
13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	최선애
14		하나님의 열정	김현지
15		복이 되기위해 복을 받다	박성지
16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	송혜란
17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세원
18		현시대의 선교자의 역할	채여진
20	목회자를 알자	디모데공동체 황의현 목사	배난모
22		CCM찬양 사역 교역자 윤주성 목사	배난모
24	목사님 궁금해요	다른지역에서 교회를 정할때...	이진수 담임목사
25	여행에서 본 기독교(4) 대영박물관 PART2		김원철
31	우리 가족은요	이호진, 김영지 부부	김영지
32	영화로 만나는 고전(15) 작은 아씨들		안재규 목사
33	성경퀴즈		출판팀
34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뉴비전교회 창립 40주년 그림 공모전 출품작	



## 목장 재편성 TF 팀

글 | 홍형기

**2020** 목장 재편성 TF팀은 작년 10월 목장 간사 모임에서 제안이 되어 목장 재편성을 좀 더 다각적으로 진행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팀원으로는 공동체 담당 목사님과 간사님 그리고 운영 사역원의 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2020년 3월로 계획되었던 영어 예배 시작에 맞추어 함께 목장 개편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예기치 않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올 6월에 최종 목장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목장 재편성은 기존에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던 공동체를, 크게 남과 북 2개의 지역으로만 나누고 동일 지역 내의 각 가정을 무작위로 컴퓨터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각 지역별로 2개씩 지정하였고 기존 공동체와의 구별을 위하여 남부 지역을 믿음과 은혜 그리고 북부 지역을 사랑과 평화 공동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을 통하여 지금까지 목장 생활을 함께 해보지 못한 여러 가정들과 새롭게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목장 재편성을 위하여 적용한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모든 TF 팀원들께서 6개월 이상 긴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목사님들께서는 한 가정이라도 목장 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모든 성도 리스트를 확인하고 기존에 목장 배정이 안 된 가정들은 일일이 연락해가며 확인해 주셨고, 간사님들과 다른 팀원님들은 기존 목장 출석을 조사, 목장 이동 신청서 접수 그리고 각 가정의 지역별, 연령별 데이터 정리 등 최종 목장 배정 리스트가 나오기까지 필요한 많은 작업들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목장 재편성팀 이외에도 작년 12월 목자 설명회 시간을 통

하여 많은 목사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신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목장 활성화 TF팀에서도 오랜 기간 준비하며 정리한 내용들 중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제안해 주셨으며, 안수집사회에서도 활동 초기 기준을 세우는 데 함께 동참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 결정과 목장 재편성을 위한 지원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목장 재편성은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편성의 마무리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모든 목사님과 부목자님, 그리고 새로운 목장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새로운 목장을 시작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성도의 교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단기간으로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9개월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던 모든 목사님들과 팀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Vacation Bible School

Concrete & Cranes (Philippian 1:6)

우리의 반석이시며 코너스톤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글 | 이수연

유치부 7/11, 18, 25 (토) 6-7pm

일정

초등부 7/28, 29, 30, 31 (화-금) 6-7pm

유,초등부 합동예배 8/1 (토) 11:30am-12:30pm

사상 초유의 2020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에는, 유초등부 어린이 총 249 (유치부102, 초등부147) 명이 참가하였고 40명의 리더와 준비팀, 31명의 기도 후원자 등 총 71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계획을 미리 하시고, 주님 이름과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COVID-19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교회 모임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팬데믹이 되기 직전에 여름 성경학교 교재의 주문을 마쳤고, 리더분들께 카피본이 가도록,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름 성경학교 스태프들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Mini Home VBS2020 을 한다고 발표했을 때, 의아해하신 분도 있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Best teacher 인지.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멋지고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유대인의 부엌에는 테이블이 두 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을,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유치부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많이 자원해 주셨고, 또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는 유초등부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정말 일사천리로 준비들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린이 부서 팀장님들과 스태프들은 매주일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고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팀워크였습니다.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준비한 교안들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준비하시는 리더분들과 스태프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Drive-Thru로 부모님들이 오셔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물들을 준비한 것을 픽업하러 오셨을 때도, 차들이 저 멀리서 들어올 때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반기는 스태프분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옛날이야기처럼 되어버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던 시절을 우리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텅 빈 본당과 채플들을 보면서, 매년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봉사자들로 붐비던, 교회의 모습이 겹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온라인으로 부모님들과 리더분들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모든 프로그램과 축도가 끝난 후에도, 어린이들은 계속 못내 아쉬워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매년 여름 성경학교가 끝날 때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이번이 제일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성경학교였다고...” 마지막 온라인 때 아쉬워하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이번에 온라인 VBS를 하면서 많은 아쉬움들이 밀려오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가능하게 하신 주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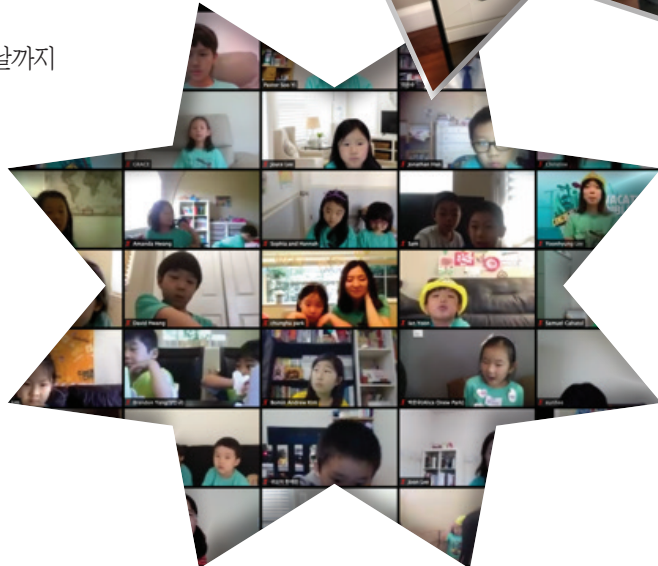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뒤에서 중보 기도로 매주 월요일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화-토요일 카톡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도록 역사하신 주님, 리더분들과 스태프분들이 한 가정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등록 마지막 날까지 받게 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등록한 가정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도록 능력 주시고,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 또 마지막으로 몽족 미션을 도와 30명의 어린이들이 새크라멘토에서 우리와 같은 시기, 하모니 교회를 인도하시는 황 목사님과 스태프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지원하신 멋진 주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팀으로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행보를 해 나갈 것을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 6) 아멘! 🙏





## 여름 특강 산상수훈을 수강하고

글 | 박재민 (평화 252목자)

**이번** 여름 특강 중 “한여름밤의 데이트”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산상수훈 과목에 대한 광고를 처음 접했을 때,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설교(마태복음 5 ~ 7장)를 많이 접하고, 한때 수훈 전체를 영어로 외웠던 저로서는 뭐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또한 재미와 의미가 동시에 있고 또 매 강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정훈 목사님 강의가 주는 무게 사이에서 선택의 갈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 갈등은 첫날 강의 시작하고 얼마 안 돼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한때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십계명의 요절은 그 열 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소개 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선언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받던 때가 생각났었습니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너희들을 구원한(완료형 시제 사용) 너의 (또는 너희) 하나님이다. 구원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는 (최소한)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라.

우리/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나의 선포나 주장이 아닌) 선포하신 것이 십계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선언/선포를 기초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또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이번 산상수훈을 통해서 비슷한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상설교 처음 부분에 나오는 그 유명한 팔복도, 그 팔복에 나오는 조건에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전에는 그 팔복에 뭔가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주의 자녀에 맞도록, 복의 개념을 재정립

하라는 뜻이 그 핵심이고, 열거하신 팔복은 그 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세례로 다시 태어나고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중생 후에 얼마나 우리의 복의 개념이, 가치관이, 생활 패턴이 바뀌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鹽)과 빛의 사명, 율법에 대한 주님의 재해석 (구약의 의미, 살인/간음/이혼/헛말세/이웃-원수사랑), 구제/기도/금식/대물관(對物觀), 가치관(세상/사물을 보는 눈)의 중요성, 세상 사는 지혜(비판/구함/열매 맺음/반석 위에 지음)와 같은 주옥같은 하늘의 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목자로서 직접,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팔염율나/구기금보/비구열반 ~ (산상수훈 전체 요약)

~심에 온의 금마화의(팔복), ~살간 이 헛 눈 네 (율법 재해석)

목사님이 염불念佛처럼 외울 수 있게 소제목들의 첫 글자만 따서 만든 wordplay입니다.

하지만 산상 설교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에 언급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려던 그 무엇, 즉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정립 없는 신앙생활,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삶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큰 “무너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과 대화하며, 정말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사는지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강의를 잘 준비하여 예수님의 조수로서, 수훈의 “재설교”를 해주신 정훈 목사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





## 여름 특강 끝내는 구약1독을 수강하고

글 | 박세영

21일간 구약 통독을 끝낼 수 있다. 참으로 달콤한 말에 여름특강을 등록했다. 그런데 송영빈 목사님께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반장을 해보면 어떨까요? 반장이요? 그냥 숙제 검사만 하면 된다고 했다. “예~ 그럼, 해 볼게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7월 10일 금요일 저녁 29일간의 구약 1독 마라톤이 시작되었다. 첫날, 송영빈 목사님이 구약 1독 20개 수칙을 알려주셨다. 성경을 매일 읽고, 권별로 읽고, 정독하고, 숙제는 12시까지 등등 ... 그날 읽어야 할 성경을 다 읽고 카톡방에 “다 읽었습니다. 은혜 구절 몇 장 몇 절“ 을 남기면 됐다. 그리고 송영빈 목사님의 아이디어로 격려 차원에서 지각이나 미제출 시 \$1 벌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물론 투표로 결정되었다.

다음날 토요일 아침부터 21일간의 성경 읽기 마라톤이 시작되고 “다 읽었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이라는 카톡 메시지가 울려댔다. ‘카톡 카톡’ 카톡이 울릴 때마다 빨리 시작해야겠구나라는 조바심이 났고 점심때부터 창세기를 정독했더니 6시간이나 걸렸다. 이 많은 사람이 밤 12시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첫날 토요일 아침부터 울리던 카톡은 마지막 한 분이 새벽 5시에 올려주셔서 전원 모두 첫날 숙제를 마칠 수 있었다. 한 분의 나오자 없이 첫 발을 디딜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 다음날 일요일에 5명, 월요일에 한 명이 추가되고 모두 55명의 구약 1독 마라톤 용사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숙제 체크도 다시 리셋하는 것으로 했다. 출애굽기를 읽는 월요일은 아침 7시 41분부터 울리던 카톡은 밤 11시 42분에야 끝이 났다. 그렇게 매일 12시 바로 전에 완성해 주셔서 신명기를 읽을 때가

지 한 명의 지각도 없이 제시간에 완주했다.

두 번째 금요일은 일주일간의 모세오경 성경 읽기를 마치고 송영빈 목사님의 모세 5경 강의를 듣고 조별 모임을 가졌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매일 아침 7시에 올리신 분은 도무지 낮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없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읽으시는 것이고 늦게 올리시는 분들은 직장이나 개인 사업 등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집으로 와서 성경을 마치시는 분이셨다. 어느 한 분도 여유 있게 읽으시는 분이 없었다. 유년의 아이부터 노년의 집사님까지 성경을 제 때 마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서로 알게 되었다. 토요일부터 2주 차가 시작되고 여호수아, 사사기/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를 한 주에 끝내야 하고 하루에 근 5시간씩 읽는 날이 3일이나 됐다. 첫 번째 고비가 왔다. 산 중에 가장 높은 산들을 3일 연속 등반해야 했다. 나는 숙제 결과와 함께 은혜 말씀을 같이 적어서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부터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송영빈 목사님은 화요일 시작할 때 금식하며 기도로 응원하겠다고 하셨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꼭 완등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나도 금식에 참여했다. 목사님의 헌신 때문이었을까 많은 분들이 힘을 내겠다고 하였고 완등의 메시지가 평상시보다 늦게 아침 10시 반부터 오기 시작해서 밤 11:41분에 55명의 마라톤 용사가 힘들고 높은 산까지 완등 하였다. 또 수요일도, 목요일도 모두 12시 전까지 다 완등 하였다. 모두가 기적이라 하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3주 차는 시가서인 욥기, 시편 1/2/3, 잠언/전도서/아가서이다. 이

제 마라톤의 반환점을 돌고 현재까지 아무런 낙오자도 없었다. 하지만 사뭇 모든 사람들이 지친 느낌이 들었다. 성경을 읽기 전 각 성경 소개를 보게 되면 보다 재밌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소개하였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기에 지금까지 한 것과 할 것을 차트를 만들어 알려드렸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서 성취감도 있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각 주차가 끝날 때마다 송영빈 목사님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100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내주셨다. 정리된 보충자료를 통해 지난주 통독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송영빈 목사님이 7월 27일 새벽에 담낭결석으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지게 되었고 우리 모두 합심해서 목사님의 쾌차를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읽게 되었다. 점심때쯤 퇴원하시고 며칠 병가를 내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요 저녁 수업은 하실 테니 꼭 55명 모두 구약 1독 완주를 부탁하셨다. 이후 우리 55명의 성경 1독 마라톤 용사들은 매일 12시 전까지 미션을 완수했다. 그리고, 성경읽기 전과 후 기도할 때 송영빈 목사님의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하였다. 그렇게 3주 차도 아무런 지각생, 낙오생 없이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였다.

4주 차, 이사야, 예레미야를 시작으로 말라기까지 마지막 구약 1독 피날레를 장식할 시기가 되었다. 목사님의 배려로 다니엘서를 하루 따로 만들어 주셔서 그나마 숨을 돌렸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22일로 늘었다. 그래도 마지막이기에 55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악물고 달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바였다.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자! 자! 자! 화이팅합시다!’ 이모티콘

은 4주간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마지막 날 송영빈 목사님의 선지서 강의를 마치고 개인별로 소감을 발표했다. 너무나 많은 사연과 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카톡에 소감을 남기면서 정들었던 구약 1독 방을 퇴장했다.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은 잊지 못할 구약 1독 방이었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들 뿐이었다. 뉴비전교회 구약 1독방 55명의 성도님들의 선하시고 충성되시고 사랑이 많음을 너무나도 많이 느낀 29일간의 성경 1독 마라톤이었다.

29일간의 도전과 은혜를 반장으로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 이번 여름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여름의 끝내주는 구약 1독’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여름 특강 끝내는 구약1독을 수강하고

글 | 김세라

**2020** 여름특강을 통하여 때에 맞는 은혜의 과도를 55명의 뉴비전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겸비하며 기다리는 다니엘의 21일처럼 (금, 주일은 쉬) 책 별로 정해진 그날 분량에 따라 평균 3-4시간을 정독하는 말씀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첫째와 마지막 금요일은 강의 후 모든 분들, 아이들까지 빠짐없이 한밤의 인터뷰를 이어가셨습니다. 말씀 일독은 기본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부, 아이들, 가족들의 사는 모습들이 한 화면에 담겨 친근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긴장을 함께 나눔으로 풀고, 또 말씀의 산맥을 각자의 컨디션대로 하지만 모두가 피니쉬 라인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클래스를 조인하지 못했지만, 남편도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오디오 영어 성경으로 매일 분량대로 함께 했고, LA에 계신 친정어머니는 오디오 성경 도움을 받으셔서 잘 마치셨습니다. “휴, 이제 다 읽었다.” 하시며 카톡을 보내실 때 옆에 계시면 꼭 안아드리고 좋아하시는 안마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울컥했고 너무도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된 것이겠지요. “그냥 잠깐 읽을 때와 다르게 참 두렵고 회개 많이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느껴지신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모든 백성이 한 곳에 새벽부터 모여 (3절)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5절) 또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순종을 하고 (17절) 말씀 읽기를 7일 동안 계속(18절) 하게 되어, 9장에서는 다 함께 금식과 회개로 이끄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꿈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 함께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너무 당연해서 제대로 읽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 말씀이 너무 흔해서 마치 계속 말씀을 읽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모두 겪고 있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 또한 무언가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안의 근심의 산과 내 속의 염려의 과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씀 읽기를 통하여 아말렉과 골리앗 같은 산과 사울과 압살롬 같은 과도의 실체를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의 현미경으로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보는 분별력과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닫힌 세상이 아닌, 오히려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과 사람들과 만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이루어지고 매일 성취하시고 계신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어려운 상황일수록 성경 말씀에 몰입하여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정말 필요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취하여 비틀거리고 뻘뻘뻘 건게 만드는 섞인 포도주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새 포도주, 사랑과 친밀함의 오래되고 맑은 포도주로 즐거움을 노래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누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끝내는 구약 1독을 통하여 다시 말씀 사랑을 찾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라인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목사님의 헌신과 양무리를 섬세하게 돌보심 그리고 반장님의 섬김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구약 1독 함께 하신 모든 분도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름 특강 **끝내는 구약/독을 수강하고**

## 한마디 소감문

**신혜경** | 처음엔 막막하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던 구약 통독을 21일 안에 마치며 저의 하루 시간과 체력을 주관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약 통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한정임** | 드디어 성경 통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쳤습니다. 목사님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주 올려주신 100가지 요점정리 파일은 두고두고 간직하고 잘 보겠습니다.

**박진희** |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또 끝까지 완독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목사님과 반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리리** | 한결같은 인내와 성실함으로 통독반을 위해 기꺼이 길잡이가 되어주신 목사님과 반장님의 수고와 헌신이 가장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가능했던, 말씀 사모하는 모든 동역자님들을 사랑으로 축복하며, 속히 교회에서 반가운 얼굴로 뵈 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아멘!

**김민주** | 3주간 짧고도 긴 시간에 말씀에 매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완독을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도 근육이 남아 있을 때 신약까지 완독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모두 감사드려요!

**이문숙** | 짧은 시간 일독한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눈물이 나네요. 여기 모든 분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되어 행복합니다.

**강문숙** | 한여름 날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송경희** |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윤경 | 시간은 흘러 세월이 되고 세월이 변하여 인생이 되고 인생은 다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는데 오늘의 나의 시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연** | 2020 여름은 구약 1독으로 큰 열매를 맺은 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채선** |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언제나 말씀을 갈망하는 지체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혜영** | 함께 했기에 끝까지 완독 가능했습니다. 같이의 가치!! 같이 하신 모든 구약 일독방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최이정** | 새로운 은혜, 회개,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승신** | 군대를 이끄시는 장군으로 송영빈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상급으로 영혼육을 강건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구약 1독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 시즌에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붙어 있었던 시간이 세상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지호** (이영의's Son) | 저는 처음으로 구약을 쉬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맙습니다.

**송률** | 지난 3주가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약 일독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겠지만 모든 분들과 함께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 2020 Perspectives

## 퍼스펙티브스 온라인 선교 훈련

지난 5월 18일 주간부터 8월 10일 주간까지 총 13주에 걸친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이 28명이 수료하며 마치게 되었습니다. 1973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에서만 2020년까지 20년째 매해 2,000명 정도가 수료하는 이 훈련은 이번 COVID-19 사태를 맞아 교재를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온라인으로 시험과 숙제를 하고, 매주 조별 온라인 모임을 통하여 배운 점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8명이 거의 결석 없이 이 숙제 많고 긴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음은 이 훈련을 통해 각자에게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성령님의 덕분입니다.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그리고 전략적 관점을 통해 오늘 이 순간도 살아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훈련을 통해, 뉴비전 교회가 왕이신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질서가 이 땅에 편만하는데 빛과 소금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훈련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

글 | 박기홍

**평소**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또한 단기선교도 여러 번 참여했었기에 선교가 낯설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전문적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과정은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다. 엄청난 책의 두께나 많은 강의와 숙제 등도 문제 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를 하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강의와 교재는 기대만큼이나 유익하고 감동적이었다.

성경적 관점부터 평소 듣지 못했던 관점을 들으며 같은 성경책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는 것을 깨달았다. (1) 역사적 관점에서는 뒤늦게 시작한 개신교 선교가 어떻게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는가를 개척적이고도 선견적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모든 상황과 어떤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종이 있었음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세심함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실감할 수 있었다. (2) 문화적 관점에서는 영원 구원을 위해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깨달았고, 다양한 문화만큼이나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알게 되었다. 문화는 장벽이 아니라 함께 포용하

고 즐길 수 있는 매개체로 생각해야 함을 느꼈다. (3) 전략적 관점에서는 선교는 앞의 3가지 관점을 잘 이해한 후 개인이나 단체 등 각자의 위치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함을 느꼈고, 이 전략을 위해 앞의 3가지 관점이 기본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 과정이 개인적인 관점과 비전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과정이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선교하는 교회 즉, 보내는 교회/나가는 교회/환영하는 교회/동원하는 교회, 선교는 이 중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총체적이고도 과학적임을 깨달았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정말 좋은 것을 배웠으니, 주위에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겠다. 이 좋은 것은 그전에 알았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특별히 이 과정을 아내와 함께 마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 평소 교회에서의 사역이 서로 달라서 공통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함께 상의하고 비전을 함께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망해 본다. ✎

## 하나님의 열정

글 | 최선애

**선교**. 부담스럽고 결심하기 어려운 것. 피하고 싶은 것. 나와는 관계가 아직은 없다고 외면해 왔던 것. 그리고 미전도 종족은 먼 나라의 이야기며 예배 때 잠시 기도하지만 더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제였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는 못해도 노력은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한구석은 찝찝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정말 괜찮은 것인가. 퍼스펙티브스는 그 생각이 깊어질 때쯤 도전적으로 다가왔고,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성경적 “복”은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해 온 “복”의 개념을 바로 잡게 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은 백성 방언에게 예배받으시길 원하시는 열정”이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동안의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정과 거의 상관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구원의 관점은 하나님의 열정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구원의 시각으로 바뀌었고 성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알고 품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생각해오던 선교자의 모습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듣는 자, 그들과 같이 되는 자, 배우는 자”의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들고 가는 메신저도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메시지를 증거 한다는 점에서 “증인 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역사적, 성경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 모두 통틀어 초점은 결국 예수님께 맞춰진다. 예수님께서 메신저이시며 메시지 그 자체였고, 전략적 사역의 본보기였다. 메시지는 씨앗(가장 본질적인 것들)으로 전해져야 하며 각 다른 언어와 문화에 성육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메신저의 훌륭한 성경적 모델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들과 같이 되심)이다.

퍼스펙티브스를 공부하며 선교의 현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혼합주의처럼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이로 발생하는 이중적 정체성 문제. 선교사의 동일한

정체성의 의미는 작게는 내 삶의 모습이 교회나 직장, 가정 어느 곳에서나 같은 모습이어야 하므로 적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려는 선교적 동일화의 필요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믿지 않는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필요함으로 생각되었고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아닌, 관습적인 것들을 마치 중요한 것인 양 강요하고 판단하는 것은 없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전에는 멀리에 살았던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 옆에 살고 있다는 것은 “도시화”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과업은 독자적인 교회나 개인이 아닌 연합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십시오로 이뤄질 것임을 알게 되었다. 모든 성공적 선교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바탕이 되었다.

최근의 한 세기 동안 역사적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수많은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하는 사실이며,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온 땅의 민족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그 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열정을 품는 기도를 시작했다.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그것을 향한 소망이 되기를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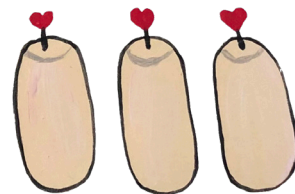


## 복이 되기위해 복을 받다

글 | 김현지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드렸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저를 단기 선교에 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부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며 저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지에서 일하시는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거든요.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고 올해 계획된 모든 선교의 문들이 닫혀서 안타까워하다가 퍼스펙티브스(PSP) 온라인 개강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까지 몽족 일일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매년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무언가 빠트리지 않았나, 내가 과연 참된 복음의 메신저로서 몽족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전략을 세웠는지 반성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PSP는 훗날 주님께서 다시 선교의 길을 열어 주실 때 제가 더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마련해주신 주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엔 성경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으며 저의 상황과 감정에 맞춰 내가 원하는 말씀들만 고를 때가 많았는데, 성경이 곧 창세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 재정의한 후부터 어떠한 상황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가지시며 그 뜻을 위해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역사적 관점을 배울 때 그 전엔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세계사를 단지 사람의 역사로 보아 나라들의 흥망성쇠, 각 시대에 꽃 피웠던 문화 등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지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선교는 신약 시대에 시작된 줄 알았는데 아브람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창 12:3)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흔히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멈춘 적이 없었음을 확인하니 지금처럼 질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선교가 더욱 어려워 ‘보이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PSP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요 14:6)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는 값진 시간

이었습니다. 마지막 전략적 관점 강의에 소개된 여러 사례를 통해 타 종교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지 전에는 몰랐던 전략을 배웠던 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점점 지켜갔던 저를 도와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에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제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니 이름조차 처음 듣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기도도 더 간절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주의 PSP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다”라는 PSP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저도 먼저 복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받았고 이제는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 복이 될 차례라 믿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도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과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

글 | 박성지

나, 등에만 집중된 내 신앙생활은 활동이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젠 마치 하나님은 내게 온 세계를 삶의 무대로 주셨는데 나는 그 구석 한 곳에서 좁은 시야와 불확실한 목적 그리고 희미한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였다. 이런 답답함을 품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퍼스펙티브스’ 과정에 참가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답답한 마음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나의 사명에 대한 재확신을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온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 속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함을 이기셨는데 아직 그것을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특히 셀 수 없이 많은 종족이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애통해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이 창세부터 약속하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서 모두 함께 주님을 자유로이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온 세계가 압도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하는데 나를 동참시키신 것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1:16). ‘퍼스펙티브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또 결국에 이를 복음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그 초대에 응답하고 참여한 사람들은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 (하나님이 쉬지 않고 스스로 또 성령으로 일으키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 역사를 읽는 눈, (세상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개별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략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배우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퍼스펙티브스’를 공부하며 기도, 교회, 소망, 예배, 하나님의 자녀 됨의 복, 믿음 그리고 열매 같은 단어의 정의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또한, 모든 종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이고 선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배는 영원토록 지속되지만, 선교는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끝나고 사라질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대계명과 대위 임령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모두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대계명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이 영원히 지켜져야 할 명령이라면, 대위 임령(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완수해야 할 명령이고 끝이 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선교사는 대위 임령을 지키고 평신도는 대계명을 잘 지키면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한 모든 성도가 이 두 계명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내게 큰 도전이 되었다. ‘퍼스펙티브스’ 훈련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많은 것들이 내 안에만 고여 있어 썩은 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이 아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선교 운동에 실제로 참여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일에 나도 일부가 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열방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미전도 종족을 위해, 세상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악의 세력에 반역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선교가 더 필요하지 않게 될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택하심이 주는 유익과 복은 바라면서 책임은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는 말에 뜨끔한 마음이 드는 모두에게 ‘퍼스펙티브스’ 훈련에 참여하기를 추천하다. 📖



##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글 | 송혜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목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니 무슬림이지요?’ 책에서 그리고 강의하시던 선교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도발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격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을 차례로 공부해 오면서 그동안 제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충분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략적 관점에서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 보지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질문을 접하고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슬림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당연히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닌가? 메시아(예수님) 모스크에서 이맘의 주도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남아시아’ 아티클의 이야기는 또 뭔가? 이 주제는 저의 신앙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가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가보다 중요한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고, 어느 곳에서 예배드려야 하느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모양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 회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지요. 그렇다면 전에 배운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자유롭게 된 복음’을 제 신념의 프레임 속으로 다시 가두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논란을 떠나 기독교 신앙이 무슬림 형식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실제 이슬람권에서 벌어지고 있고 선교사들의 접근이 어려운 폐쇄

적인 문화권에서 이는 당연한 일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확산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개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차원을 넘어 모든 종족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다시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전도 종족들과 선교사님들께 관심을 갖고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편안하게 전파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불필요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분별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열방이 나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선교의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





## 현시대의 선교자의 역할

글 | 이세원

**이번** 퍼스펙티브스 온라인 선교 훈련을 듣게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과 약속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을 미국에 부르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모든 민족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스도가 악을 이기고 사람들을 해방해서, 그분의 주권과 축복 아래 순종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열정을 쏟으시며 점진적인 계시와 성취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성취될 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온 열방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꿈꾸는 사도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귀한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겸손하심을 깨달은 제자들과 많은 무명 선교사들의 변화된 삶의 목적으로 인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맡겨주신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의 아픔과 문화를 진정으로 공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들 역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자생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미국에 거주하는 한 친구의 영혼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5년 전 이 베이 지역에 비자발적인 선교로 연결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많은 것들이 퍼스펙티브스 과정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음을 상기시켜 주셔서 나약한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부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많은 미전도 종족(무슬림권, 힌두권, 부족권, 불교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베이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3-4% 미만이 안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의 기회가 이 땅에 주어졌는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암흑기 시대에도 주님께서 계속 그분의 복음 사역을 묵묵히 이어 가신 것처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뜻이 지금 이 힘든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온라인으로도 전파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임재와 권능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들/복음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new normal (paradigm shift)에 재빨리 순응하며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금 현시대에 주신 주님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퍼스펙티브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적 관점, 성경적 관점, 문화적 관점 그리고 전략적 관점을 배우며 주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 하나님의 HISTORY

글 | 채여진

**지금**까지 선교를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퍼스펙티브 선교 강좌를 듣기 전 저는 선교를 생각할 때 ‘언젠가 저 멀리 미지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며 마치 꼭 해야 하는데 너무 멀게 느껴져서 상상만 하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상상, 나의 의가 먼저 나타나는 모습으로 선교를 꿈꿔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퍼스펙티브 선교 강좌를 듣고 난 후 저는 제 속에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도 선교에 임하여야 하는 저의 자세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제 자신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책을 받아보았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 하며 큰 부담감을 먼저 안고 시작하였습니다. 역시나 그 책을 자세히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 과마다 있는 강의를 들으며 문제를 풀고 중요 내용을 읽으면서 선교에 대한 저의 관점은 스스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성경적 관점을 통해 진정한 복, 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바뀌었고, 영광을 통해 예배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선교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만방에 흘러가는 것으로 모든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모든 민족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기에 선교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항하며 펼치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통해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지도 배울 수 있었으며, 나의 모든 틀을 벗고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복음 자체가 나를 자유롭게 함으로 온 인류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을 통해 4000년의 성경 역사 속에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 확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일하시며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 복음을 세계화하셨고, 그분의 뜻이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때도 그분의 방향대로 일하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His story를 느끼는 정말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아직도 기독교와 완전 단절이 되어있는 미전도 종족들, 종족 집단들이 20억이나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얼마나 전략적으로 선교사업에 임하여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는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관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닌 세부적인 종족 단위로 얼마나 많은 최대 동질 종족이 미전도 종족 안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며 그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동역해야 함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솔한 미전도 종족들, 그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 그들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며 그리스도의 과업을 이루어 나가는 데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하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교회, 미전도 종족, 세속 사회 등 아주 다른 대상을 향해 의사소통하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 그 하나의 핵심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봤을 때, 깊은 존경심마저 안겨 주었습니다. 긴밀한 유대관계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과 유대감을 갖는 지혜가 필요하며 사랑과 존중함으로 그들에게 들어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선교사는 진정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전형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함을 깨달

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세계관을 온전히 이해하여 그들의 세계관에 변화를 줄 때, 진정한 선교가 시작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략적 관점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 모든 상황과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닌 그 종족 집단 속에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이 배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 제자들이 각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이루시는 전략적인 선교입니다. 너무도 유연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따르고 나아가야 하는 선교 방법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팬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더 기도하며 열심히 선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더 깨달을 수 있었던 점은 선교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미국 땅,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미전도 종족 집단, 국가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절실히 기도하며 손을 펼칠 때 선교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연한 모습으로 그들 속에 임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내가 아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 땅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에서도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 안에서 내가 아

닌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갈 때 선교는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퍼스펙티브 온라인 선교 강좌는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3주 동안 조장님의 지도 아래 매주 각 조원을 온라인으로 만나 같이 기도하며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되니, 주안에서 더 힘이 나고 지혜를 복돋을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소망을 향해 내 주변에 복음의 씨앗이 필요한 곳부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스스로없이 따라가겠습니다. 두꺼운 퍼스펙티브 책들을 저의 소중한 선교 자료 삼아 필요할 때마다 더 자세히 읽으며 보관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팬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그분의 시선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COVID-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귀한 시간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



목회자를 알자  
디모데공동체 황의현 목사

취재, 글 | 배난모, 김원철



**지난** 8월 디모데공동체 담당으로 황의현 목사가 부임하였습니다. 아직은 뉴비전 청년들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청년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황의현 목사님을 온라인상에서 만나 개인적인, 그리고 교회를 위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 이야기를 먼저 해 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랐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황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다는 ‘야망’도 있었으나, 사춘기 때 교회 내에서 분란의 모습을 보고, 특히 교회 집사로 섬기시던 어머니에게 교회 개척의 파트너로 부르더니 교회 성장 이후 전도사인 어머니가 목회자로부터 냉대받는 모습을 본 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파일럿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만 보면 어떤 기종인지 알아맞힐 정도로 비행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지금도 항공사별로 노선이나 스케줄을 쓸데없이 외우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적으로 저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주일 학교 보조 교사로 참석한 여름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로 진학했

습니다. 하지만 신학교 재학 중에 교회를 섬기며 겪었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 졸업 이후 신학대학원의 진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 안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목격하면서, 목회자의 길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저 목회자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제 자신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큰 회의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방황하던 중, 2006년 파키스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지역을 섬겼던 것이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NGO 단체에서 파견된 긴급구호팀의 자원봉사자로서 3개월을 섬기면서 죽음과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을 많이 보았고, 또한 한국 귀국 후에 지진지역에서 만났던 NGO 자원봉사자들과 선교사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나는 왜 살아남아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이 샘물교회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NGO 단체의 카불 현지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카불 방문 기간 중에 카불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던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NYU 출신으로 뉴욕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온 한국 교포 자매였습니다. 자신이 911테러 시 그 중심 빌딩에서 근무하였는데, 빌딩 아래에 찾아온 사람을 만나러 내려갔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 사건 이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형제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한국에 온 이후로도 저에게 메아리처럼 남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 자매님이 사모님은 아니시죠?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네, 아닙니다. 하하. 그 자매님은 지금도 카불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돌아와서 2008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중학교를 마치고 텍사스로 이민 온 아내(한수빈 사모)는 2008년 2월 23일, (죄송합니다. 제가 사소한 것을 잘 기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대학원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 시간을 대화한 후 ‘이 자매와 결혼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해 7월 12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들 예훈(Aiden, 9세), 딸 예홀(Avery, 7세)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박사 과정에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Historical Criticism (역사 비평학)이 성서해석에 끼친 영향에 대한 논문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박사과정 Comprehensive Exam을 준비하면서, 인본주의 기반한 성경 해석이 교회를 무너뜨려온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교회로 부르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올해 초 뉴비전교회의 청년부 사역자 청빙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논문 작업을 끝내려 한다는 핑계로 권유를 해 주신 분께 거절했더니, ‘대형교회라서 싫은 것인가? 그렇다면 황 목사는 교만한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주님의 뜻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뉴비전교회 디모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청빙위원회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는 것을 디모데 공동체 청년들과 함께 경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때인 지금 뉴비전교회와 디모데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큰 특권이라 생각하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공동체 담당 목사님으로서 목회 계획을 나눠 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예배’ 하는 공동체, ‘말씀’ 앞에서 개혁하는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를 향해 청년들과 함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중,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변화(transform)되는 삶을 목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는 청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한 목회자의 비전이나 디모데 공동체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구성체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뉴비전교회가 몇 리더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 조직이 아닌, 팀 사역을 하는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성도님들과 협력하고 팀 사역을 더 배우면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뉴비전교회 성도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세요.**

뉴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뉴비전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 싸우는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뉴비전교회가 ‘성경 중심’이라는 것에서 현세대에 필요한 목회를 하시는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된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내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 주셔서 함께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목회자를 알자  
CCM찬양 사역 교역자 **윤주성** 목사

취재, 글 | 배난모, 김원철



**지난** 6월, 교회의 CCM 찬양을 담당하는 교역자로 윤주성 목사님이 부임하였습니다. 찬양을 통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해 주시는 윤주성 목사님을 만나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먼저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저희 교회 어른들이셨습니다. 아내와는 따로, 그리고 같이 찬양 사역을 오래 해왔습니다. 이번에 LA에서 밀피타스 하이스쿨로 전학한 제 아들은 뉴비전교회에 오자마자 고등부 찬양팀에서 베이스로 섬기고 있습니다. 딸은 대학교 3학년입니다. 모두 음악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던 목회자이셨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뿐 아니라 제 남동생도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신앙 유산입니다. 아버지의 목회 철학은 첫째 기도이고 둘째가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예배 후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만들었고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신학교 졸업 후 2002년도에 뉴질랜드 선교사로 2년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훈련 사역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면서 선교사로 섬기던 중, 2004년에 남가주 사랑의교회에 청빙 되어서 미국 목회자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목회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목회자 청빙을 준비하던 중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위해 LA에서 crazy boss라는 가게

의 세일즈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교인을 섬기듯이 고객들을 대해서 그런지 매출이 부쩍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도 많이 따르고 고객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던 중 뉴비전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산호세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고객들과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서로 간의 정을 느꼈습니다. 1년 반 정도로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목회자로서 이민자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경험한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의 힘든 삶을 더 공감하고 삶과 밀접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뉴비전교회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제가 인터뷰를 위해 처음 뉴비전교회에 온 주일이 COVID-19이 번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예배당은 절반 정도의 교인이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느낌과, 40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임했을 때는 교회에서 성도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조용하게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먼저 찬양으로 섬기면서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뉴비전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사역, 뉴비전성경학교 등에서 저에게 오신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평신도 예배자 학교’와 ‘찬양과 말씀 목사를 같이하는 훈련’ 등의 강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찬양으로만 드리는 예배도 인도하셨다고 하던데요. 일반 예배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찬양 예배도 일반 예배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 나누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예배로 부르심과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찬양을 하고 언어로 된 말씀 선포가 일반 예배라면, 찬양 예배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예배도 자주 인도하였습니다. 뉴비전 성도님들과도 찬양 예배가 자주 있기를 기대합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악보 없이 찬양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 준비를 하면서 먼저 찬양 가사를 묵상합니다. 암송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상하면 자동으로 암송하게 됩니다. 그 후 가사를 각 구절별로 따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과 삶을 찬양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부를 노래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 있는데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능치 못함 없네.” 등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큐티하듯이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가사를 불러준다기보다는, 제가 묵상한 구절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시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과 내 감정이 일치하기를 위해서 사실 훈련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데 찡그리는 표정으로 찬양하기보다는,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힘든 일상 속에 있다가 찬양을 통해 예배의 문을 열기 때문에 최대한 밝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요즘 일과를 말씀해 주세요.**

교역자 회의와 모임이 오전에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에 말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찬양곡을 정하고, 저작권을 찾아보고, 영어를 찾는 등의 작업에 시간

을 많이 들입니다. 책 보기를 좋아해서 책도 많이 봅니다. 참, 그리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밀피타스, 산호세 지역에 좋은 하이킹 트레일이 있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행정적인 일을 좋아해서 오히려 그런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 읽는 데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비전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세요.**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찬양팀은 성도들의 찬양하려는 마음에 살짝 불을 살짝 붙여주는 역할이고, 이후에는 성도들의 찬양 불길에 찬양팀이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저희의 섬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힘든 날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려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예배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부터 하나님께로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홀로 있어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쯤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 시를 쓰시고 찬양 전에 낭독하는 기획을 하고 싶은데 많은 성도님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인도자, 악기 연주자, 노래하시는 분들과 만드시는 분들이 모두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뉴비전 성도님들, 저를 뉴비전교회의 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잘 뿌리내리고 섬기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의 위로와 힘을 주시는 윤주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



## 목사님 궁금해요

이진수 담임목사

**Q**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정할 때 그 교회가 세상적인 교제로 교세를 늘리려는 교회인지,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교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좋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는 당연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찾고 따르는 것은 우리 신앙의 도리입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신 지혜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1)말씀 중심적인 교회 : 주일 설교 말씀과 더불어 말씀 사역이 성경 말씀 중심적인지 살펴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성경적이며 역사적으로 선포되는지 살펴봅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교회 메시지 중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 : 하나님 말씀이 법칙과 규율로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마음과 사랑으로 들려지고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 자칫 율법주의적 교회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변화할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지 살펴봅니다.

(3)성도들의 교제가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는 교회 :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헌신과 봉사로 이뤄지는 교제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에는 마음이 끌리고 참여하고 싶은 바람이 생깁니다.

(4)교육과 훈련에 열심을 보이는 교회 : 말씀을 배우는 교육뿐 아니라 배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과 섬김의 장이 열려 있는지 살펴봅니다.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더욱 배움에 열심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5)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기에 힘쓰는 교회인지 살펴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믿음의 힘을 받게 해주는 예배인지 살펴봅니다.

완벽한(Perfect)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주 안에서 완벽한 교회로 변화되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도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대로 좋은 교회를 선택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누며 복음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

## 여행에서 본 기독교 대영박물관편 part 2

글 | 김원철

지난호에 대영박물관의 유물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유물과 별로 관련 없는 파르테논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영박물관을 방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관람하는 유물이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하겠습니다.

### 파르테논



사진 1-1 아테네 파르테논

사진1-1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의 모습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하였을 때 이곳을 화약고로 사용하였는데 1687년 베네치아 군이 이곳을 공격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조각들을 모아서 복구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장 조각은 찾을 수 없도록 없어졌습니다. 천장 아래에 붙어있는 이등변 삼각형 부분인 페디먼트(Pediment)의 장식 조각들과 페디먼트 밑에서 기둥 시작까지의 벽면 장식인 메토프(Metope)는 그나마 파편으로 남아있었는데 영국의 엘긴이라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구입하여 대영박물관에 있습니다. 대영박물관에 옮겨진 메토프 부분을 연결하여 한 방을 메우고 있는데, 연결된 총 길이는 100미터쯤 되는 듯 합니다.



사진 1-2 파르테논의 페디먼트

사진 1-2는 대영박물관으로 옮겨진 페디먼트 부분의 일부(약1/5정도)입니다. 사진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말의 모습은 사진 1-1의 아테네 파르테논 페디먼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파르테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테나라는 그리스 여신을 위한 건물로, BC 430년경 그리스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페리클레스의 지시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포로생활에서 유대로 돌아온 지 약 100년쯤 지난 시기이니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미 건축되었고, 느헤미야의 지휘 하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도 끝나가던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라는 나라 이름이 익숙하지만 그리스라는 이름은 외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불렀던 이름이고, 자신들은 헬라라고 불렀습니다.





요엘서(개정개역)에서는 두로, 시돈,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을 헬라에게 팔았다고 나오는데 그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신명기2장에 갑돌(그리스 크레테로 추정)사람이 가사(블레셋지역)에 거주했다는 것으로 봐서 블레셋은 그리스와 같은 핏줄로 보입니다. 두로, 시돈 사람들은 알파벳의 초기 형태인 페니키아 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BC 10세기 경에 그리스와 교류하면서 그리스 문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포로를 헬라에게 팔았다는 것은 이해되는 사실입니다.

헬라라는 이름을 알렉산더 왕 때(즉, BC 320년 경)에 지어졌다고 생각해서 헬라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헬라라는 이름은 BC 3세기에 쓰인 헬라이어 성경 70인역 이후에 기록된 것이고, 이전 히브리 성경에는 그리스가 '아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트로이 전쟁을 기록한 일리아스를 보면 트로이로 가는 부족 이름이 헬라스와 헬레네스입니다. 일리아스는 BC 800년에 쓰였으니 그때 이미 헬라라는 이름이 존재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점령지의 사상을 통일하려고 한 것은 알렉산더가 맞지만 이름 자체를 지은 것은 아니라서 밝힙니다.

아테네의 중앙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작은 그러나 가파른 동산이 있는데 이 꼭대기를 편편하게 다듬고 그 위에 여러 건물을 지었습니다. 파르테논의 크기는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 정도 사이즈이고, 아크로폴리스 꼭대기 편편한 곳의 면적은 교회 주차장까지 포함한 면적의 2배 정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르테논은 간결한 도리아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것인데 대영박물관 정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파르테논에서 동쪽 방향을 내려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연설했던 아레스 바고가 보입니다.

### 라기스 공성전(BC 701년) 부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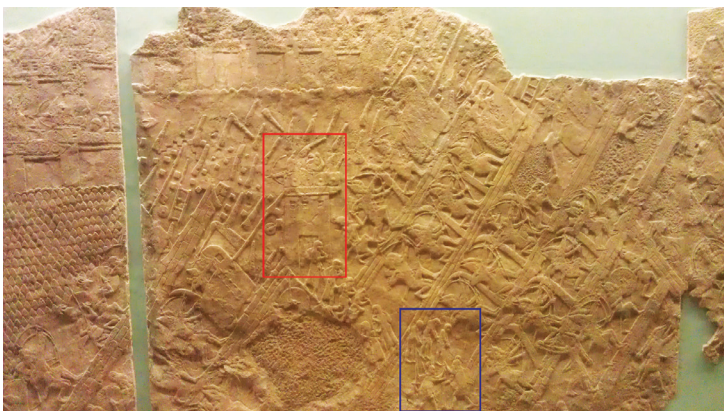


사진 2 아시리아의 라기스 공성전 부조

열왕기하18장과 역대하32장에 보면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의 여러 성을 점령하자 히스기야 왕이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산헤립에게 금과 은을 주고 떠나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라기스 성은 이스라엘 해안 도로 상 주요 도시여서 수난이 많았습니다. 산헤립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사르곤의 아들입니다. 라기스 공성전을 조각한 부조는 니스웨 성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산헤립의 업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을 점령했다고 기록하였지만, 예루살렘은 포위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점령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열왕기하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 진영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은 약 250년경 후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의 역사서(히스토리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의 들쥐들이 아시리아 진영의 무기와 장비들을 먹어 치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비유대인도 인정할 사건입니다.

사진 2는 라기스를 공격하는 산헤립 군대의 모습입니다. 사진의 가운데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탑은 라기스 성탑에서 방어하는 유대인



입니다. 활 쏘고 돌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사다리 같은 공성기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파란색 박스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을 처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 라기스의 편지 (BC 590년경)



사진 3 바벨론의 공격에 관한 라기스 편지들

앞에서 말씀드린 라기스 공성전은 아시리아가 북 이스라엘 멸망시킨 직후 남유다의 라기스를 점령한 사건에 관한 것인데 그 라기스는 그로부터 약 100년 후 바벨론에게 다시 점령 당합니다. 이때는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공격합니다.

사진 3은 라기스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석판들입니다.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의 공격을 받은 유다 사람들의 편지들로 대영박물관 2층의 고대 시리아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석판 중 제일 위 왼쪽 석판은 라기스의 유대 수비대장이 총지휘관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 '아세가의 봉화를 볼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아세가가 점령당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는 예레미야 34장 7절에는 아직 점령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이 부분이 쓰인 이후에 편지가 쓰였나 봅니다. 사진 위 오른쪽 석판(오른쪽 아래가 깨진 석판)에는 야훼(YHWH)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야훼께서 내 주님의 평안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고 쓰여 있습니다.

### 앗수르바니팔의 사자 사냥 (BC 640년경)

산헤립의 손자인 앗수르바니팔은 아시리아 최전성기를 누린 왕으로서 앗시리아는 이 왕 이후에 급격히 쇠퇴하여 약 15년 후 바벨론의 나바폴라살 왕에게 멸망합니다. 최전성기 이후 급격히 쇠퇴하는 것은 역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함무라비 이후의 고대 바벨론, 느브갓네살 이후의 신 바벨론, 람세스 2세 이후의 이집트, 진시황 이후의 진나라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앗수르바니팔이 아시리아의 왕이었을 때 유다에는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앗수르바니팔은 유다를 괴롭히지 않았던 듯합니다.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이집트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에 바빠서 여유가 없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왕 때에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것에 대한 원한 때문인지, 그로부터 20년쯤 후인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이집트는 멸망해가는 아시리아를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앗수르바니팔은 문화 애호가로서 니느웨에 중동 최초의 도서관을 만들고 각종 점토판들을 보관했습니다. 지난 호에 말씀드린 길가메시의 서사시 점토판도 이 도서관 자리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진 4-1 앗수르바니팔의 사자 사냥 전시실

사진 4-1은 앗수르바니팔이 사자 사냥하는 과정을 부조한 벽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 30m 정도의 벽 양쪽에 이 부조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진 4-2 사자 사냥하는 모습

사진 4-2는 사냥하는 모습인데 왕은 왼쪽을 향하고 있고, 다른 군인들이 오른쪽 사자를 찌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군인들의 창이 사자를 완전히 찌르지 않고 창 끝만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를 죽이는 것은 왕의 몫이어서 그렇습니다. 전시된 부조 중에는 왕이 사자를 찌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때는 왕의 창은 사자 몸속 깊숙이 들어간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나보니두스의 실린더

나보니두스는 고고학에서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으로 생각되었던 왕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왕이 벨사살로 나와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벨사살이 허구 인물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의 포고문이 적혀있는 실린더(사진 5)가 1854년에 발견되었는데, 이 실린더에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의 이름이 있는 유물이 거의 없는 이유는 나보니두스의 사후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나보니두스가 자신은 달의 신을 따르겠다고 아라비아로 가면서 벨사살을 섭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다니엘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했을 때, 벨사살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제 3인자로 삼은 이유를 아시겠죠? 자신이 제 2인자이니깐요.



사진 5 나보니두스의 실린더

### 고레스의 실린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주변 왕 중에는 일반 역사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집트 왕 중에는 모세 시절의 투트모세 3세와 람세스 2세, 르호보암 시절 가나안을 쳐들어 온 시삭 왕이 있습니다.

앗수루 왕 중에는 불(디글랏빌라셀), 사르곤, 산헤립이 있고, 바벨론 왕 중에는 느브갓네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마라톤 전쟁의 유명한 바사 왕 다리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서의 다리오는 바사 왕 다리오가 아닌 메대 왕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동명이인인 것이죠. 이 왕들 중에서 고레스(키루스, Cyrus) 왕은 무척 흥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역대하, 에스라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바벨론 왕으로도 나오고 바사(페르시아) 왕으로도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이면서, 메대, 리디아, 바벨론 등을 점령하여 이 지역의 왕을 겸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에스라 1장의 구절을 대하면서 고대에 그런 열린 마음의 왕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고대의 이상적인 군주를 4명 선정했는데 이 4명 중에 모세와 고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세노폰은 고레스 왕이 죽은 지 150년가량 후에 키루스(고레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그가 이 책을 저술하기 20년쯤 전에 페르시아 왕족 간의 전투에 용병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고레스에 관하여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리스의 학자인 크세노폰이 고레스를 좋게 평가했다는 것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고레스가 아버지인 캄비세스 1세에게 배운 이야기들을 대화 형식으로 기록하였는데 주로 전쟁에 관한 것과 왕으로서의 자세에 관한 대화들입니다. '지도자가 처벌이나





보상을 통해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레스가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의 아버지 캄비세스는 '그것은 강제적인 복종이고, 더 좋은 방법은 이익을 주어서 즐겁게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고 승객이 선장의 말을 듣듯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피지배자에게 사랑받는 것'을 고레스가 질문하자, 그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면 사랑을 받지만 항상 그런 위치에 있을 수는 없다. 대신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키는 크세노폰의 이 책을 리더십에 대한 최초이자 최고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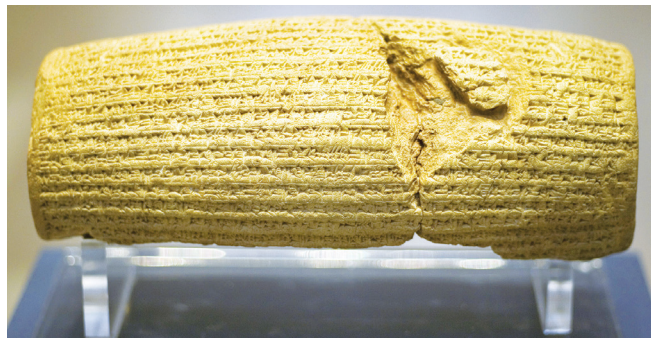



사진 6 고레스의 실린더

사진 6은 1879년에 바벨론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레스의 실린더인데 이 원통에 쓰인 글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거주민에 대하여는... 나는 노동자들을 임금 없이 일 시키는 것과, 사회적 신분을 주지 않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무질서한 주거 생활에 안녕을 주었고 티그리스 강 다른 편(즉 가나안 땅 등)에 있는 헌납됐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 되어온 거룩한 땅으로... 나는 역시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리로 돌려보냈다.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지으라는 조서를 내린 그런 성품을 만드시고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방식이 느껴집니다. 이 고레스의 원통은 대영박물관 북서쪽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셔서 메소포타미아관을 지나 북동 끝의 페르시아관에 가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고레스 부분을 읽으신 후 보시면 더 감동을 느끼실 것입니다. 



글 | 김영지

안녕하세요. New vision Family 9년차인 Lee Family를 소개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호진, 김영지, 5학년이 된 열 살 나율이, 9월에 여섯 살이 되는 kindergartener 주환이(Nathan) 이렇게 네 명입니다. 남편은 말만 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이 생겼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face에, 요리하기를 좋아해서 새로운 요리를 따라해 보고 맛보는 것을 즐기곤 합니다. 장차 멋진 주방과 조리 도구를 가지는 것이 꿈이라고 하네요. 저는 책 읽기, 음악 듣기, 여행하기를 좋아하는데 미국에 와서 터울지는 아이 둘을 키우느라 거의 취미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다행히 요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여 팬데믹의 단조로움 가운데서도 활력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애들이 좀 커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바이올린을 배워서 아들, 딸과 뉴비전 오케스트라에 서는 게 오래 된 dream입니다. 한국말을 제법 잘해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로 오인받는 첫째 나율은 책을 너무 사랑해서 나머지 다른 일들이 뒷전이라 가끔은 책 읽는 것을 말려야 할 때도 있어요. 나율은 그림 그리고 글쓰는 것을 좋아해서 미래에 작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하고 싶다고 하고요. 막내 주환이는 저희 집 웃음 담당. 어릴때부터 남다른 퍼즐 맞추기와 레고 조립하기 실력을 보여주는 자칭 Lego Genius로 창의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가족들을 놀라게 합니다. 얼른 heaven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살아서 heaven에 가고 싶다고 갑작스레 이야기하는 엉뚱하고도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어른이 되기는 싫고 일곱 살이 되면 Super Hero가 되고 싶대요.

큰 아이 나율이가 태어난지 1개월 되던 2010년 4월, 직장 문제로 남편이 먼저 한국에서 산호세로 오게 되었고, 약 1년간 이산가족으로 지낸 우여곡절 끝에 2011년 5월 말 저와 나율이가 미국에 왔습니다. 2014년 가을 주환이가 태어나 지금의 네 가족이 되었고요. 처음 교회를 정하는 과정에서 저의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제일 먼저 예배드린 New Vision 교회에 등록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니 다 예정된 것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 관계로 저희 부부는 주로 어린이부에서 섬겨 왔습니다. 육년 전 여름, 둘째 임신으로 만삭의 배를 하고 VBS를 섬기기 위해 교회 여기저기를 쏘다니던 저를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저희는 나율이의 노아스 아크 첫 해 PTA를 시작으로 VBS Staff, Sunday School 교사, Elementary Usher 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향수 예배와 목장 교제를 통하여 큰 도움과 사랑을 받아왔고 이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얼른 이 팬데믹이 끝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만나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






## 작은 아씨들 Little Women

### \* 루이자 메이 올코트의 “작은 아씨들” (소설의 즐거움)

메그, 조, 베스, 에이미의 아버지는 남북 전쟁에 중군 목사로 나가 있어 집안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자매는 헌신적이고 자상한 어머니와 함께 이웃을 도우면서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네 자매는 이웃집에 사는 로리와 로렌스 할아버지와도 친구가 되어서 우정과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네 자매는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어느날 전쟁터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해서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기 위해 떠난 뒤 자매들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열심히지만 점점 나태해집니다. 그러던 중 베스가 큰 병(성홍열)을 앓게 됩니다. 베스는 다행히 차도를 보이고 자매들은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네 자매의 집은 기쁨에 휩싸입니다. 메그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로리의 가정교사 브룩 선생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 \*\* 책과 영화를 통한 나의 작은 생각의 편린들 ...

독자들의 성원에 못 이겨, 작가 올코트는 속편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속편에서는 네 자매들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3년 후 메그는 브룩 선생과 결혼하여 보금자리를 가꾸는 일에 열심히입니다. 조는 문학에 정성을 다하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베스는 몸이 약한 탓에 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에이미는 아름다운 숙녀로 거듭나 대학에 입학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로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본 영화에서는 전편과 속편을 아우르면서 베토벤, 쇼팽, 브람스와 슈만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영화를 수놓고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크리스마스 무렵, 미국의 평범한 가정을 배경으로 네 자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개성이 뚜렷한 네 자매가 꿈을 품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들은 네 자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자매가 아빠를 전쟁터에 보내고 엄마와 집을 지키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지만 네 자매는 서로 의지하며 꿈을 키워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아씨들 메그, 조, 베스, 에이미가 함께 보듬으며 이해하면서 의지가 되어준 것처럼 행복의 조건이 소유가 아닌 존재들의 아픔 속에서도 한 장의 손수건이 되어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따뜻한 안이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LI DEO GLORIA!  
청년사마리탄 안재규목사

- \* 감상영화: 작은 아씨들 Little Women
- \* 감독: 그레타 거윅 Greta Gerwig
- \* 제작: 2019년, 미국
- \* 상영시간: 135분
- \* 장르: 드라마
- \* 관람대상: 전체 관람가
- \* 출연:
  - 시얼샤 로넌 Saoirse Ronan (조 마치 역)
  - 엠마 왓슨 Emma Watson (메그 마치 역)
  - 플로렌스 퓨 Florence Pugh (에이미 마치 역)
  - 엘리자 스캔런 Eliza Scanlen (베스 마치 역)
  - 티모시 샬라메 Timothee Chalamet (로리 로렌스 역)
  - 메릴 스트립 Meryl Streep (고모 역)
  - 로라 던 Laura Dern (엄마-마치부인 역)
  - 밥 오덴커크 Bob Odenkirk (아버지-미스터 마치 역)

# 도전! 성경 퀴즈

제공 | 출판팀

목장: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1	A			B			2		
						C			
3						4		D	
	E		F			5			
6								G	
								7	
		8		H					
								9	

**-세로열쇠-**

- A. 골로새 교회의 성도이며 (골 4:17) 바울로부터 '함께 군사된 자'라는 소리를 들은 성도 (문 1:2)
- B. 옴바에 사는 여제자로, 선행과 구제를 주로 했던 여인. (행 9:36-40)
- C.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곳의 교회를 언급했으며, (골 2:1, 4:12-16) 그곳에 보낸 편지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서로 바꾸어 보도록 권면했다. (골 4:16)
- D.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 (마 13:55, 막 6:3)
- E.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며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와 이곳의 교인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였다고 썼다. (골 4:13)
- F. 예수께서 가이사랴를 피해 일시적으로 이곳에 머무셨다. (요 11:54)
- G. 사도바울은 이곳 사람들을 야만인과 동역어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민이 평등함을 강조했다. (골 3:11)
- H.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자 인간 내면 세계의 중심지이며 윤리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다.
- I.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자들 중에는 메대, 바사와 함께 이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행 2:9)

**-가로열쇠-**

- 1. 데살로니가에 살던 마케도나인으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다. (행27:2) 바울은 그를 '동역자' 라고 불렀다. (문1:24)
- 2. 아시아 출신의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3차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다. (행20:4) 바울이 제 1차 투옥생활을 할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동반하여 소아시아를 방문했다. (골4:7-9)
- 3.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되는 복과 화. 이것의 주체는 하나님(골3:25)
- 4.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주했다가 당시 감옥에 있던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문1:9-10) 그 이후부터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골 4:9)
- 5.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별명. (요 1:42)
- 6.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골1:7), '그리스도 예수의 종' (골4:12)이라 불렀다.
- 7. 인간의 영육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분. 구속자, 구원자, 구세주와 비슷한 뜻.
- 8.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그 탄생이 예고된 한 아들의 이름. (사 7:14)
- 9. 기도나 송영에 사용하여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뜻. (고전 14:16, 엡 3:21)

● 응모 마감 | 2020년 11월 29일 (주일)

● 응모 방법 | 정답을 적어 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nvcpub@newvisionchurch.org](mailto:nvcpub@newvisionchurch.org)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 뉴비전교회 창립 40주년 그림공모전 출품작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 뉴비전호로 보내주세요.  
[nvcpub@newvisionchurch.org](mailto:nvcpub@newvisionchurch.org)





# 뉴비전교회

##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 office@newvisionchurch.org  
 www.newvisionchurch.org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Building God's People to Transform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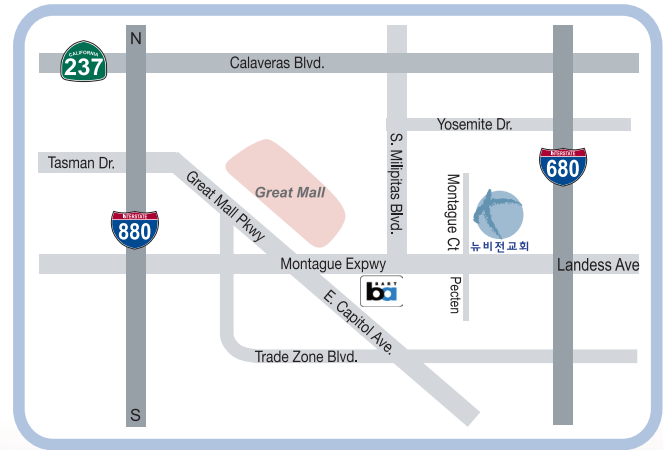
### 주일예배 | Sunday Worship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15 am	본당
4부 청년 열린예배	1:15 pm	본당
영아부 (0-2세)	9:30 am & 11:15 am	본관 Little Lamb Garden
유치부 (3-5세)	9:30 am & 11:15 am	교육관 Noah's Ark
유년부 (1-2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New Song Chapel
초등부 (3-5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Wisdom Chapel
중등부 (6-8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Vision Chapel
고등부 (9-12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Lighthouse Chapel
영어대학부(Oasis)	1:30 pm	교육관 Vision Chapel

### 주중모임 | Weekly Schedule

매일 새벽기도회	5:30 am	본당 (토요일 6:30 am, 주일은 쉬)
화요 여성예배 (향수)	10:00 am	Pathway Chapel
수요 저녁예배	7:30 pm	본당
목요 청년예배	7:30 pm	Vision Chapel
금요 한국학교	4:30 pm	교육관 각 교실
금요 뉴비전성경학교	7:30 pm	본관 각 교실
금요 고등부 모임	7:30 pm	Lighthouse Chapel
금요 중등부 모임	7:30 pm	Vision Chapel
금요 어와나(AWANA)	7:30 pm	Noah's Ark, New Song Chapel
토요 노아대학	9:30 am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열린학교	주중 클래스별로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 \*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배는 2부 3부 장년 예배 시간과 같으며 1부와 4부 예배 시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 \* 예배 후에 장년 목장모임, 어린이부, 중고등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 2021년부터 주일 장년 영어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문의 EnglishWorship@newvisionchurch.org)



Find us on:  
**facebook.**



NVC  
 Website



**SUBSCRIBE**  
 TO OUR CHANNEL

